

1과 설교

In the Beginning

창세기 1:1-3:21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구약 성경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주 설교를 듣고, 매일 큐티도 하는데 새삼스럽게 구약 성경에 대해서 배운다는 말이 낯설게 들리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3주간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개별 사건들이 아닌 구약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매주 듣는 설교와 매일 하는 큐티는 대부분 하나의 사건에 집중합니다. 그 개별적인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진짜 의미를 발견하는데 집중하곤 하죠. 이렇게 깊이 말씀을 보는 것은 매일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사건 말고, 구약성경 전체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길게 기록되었을까요?

구약성경은 39권의 책의 모음입니다. 저자도 수십 명이고, 기록된 기간도 4500여년에 걸쳐서 기록되었습니다. 만약 다른 책이었다면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한 책이라고 부르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각 권은 각기 다른 시간, 다른 저자에 의해서 쓰였고, 다른 사건을 다루는데다 형식도 전부 다 다르지만 하나의 책입니다. 왜일까요? 구약 전체가 가지고 있는 주제의 통일성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의 책 전부, 그리고 그 안의 모든 말씀이 하나의 흐름,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특별히 모든 시간 속에서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을 통해 기록하셨기 때문이지요.

성경은 여러 개의 에피소드를 모아놓은 단편집이 아니라서 개별사건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이 커다란 흐름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약 성경 39권이 가진 하나의 주제를 아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수천년의 시간 속에서 하나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흐름을 안다면 성경의 개별 사건의 의미가 좀 더 쉽게 보이고, 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의 의미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흐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은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까지도 꿰뚫는, 성경 전체가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완성해가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는 책임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이스라엘과 맺으시는 ‘언약’을 소개합니다. ‘구약’이라는 단어도 ‘오래된 언약’, ‘오래된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시는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약의 내용에 따라, 언약이 성취됨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어떤 측면이 도드라지게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좀 덜 드러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의 여러 본문들은 모두 언약이 성취되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부분이 발전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이런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내는 본문은 어디일까요? 바로 창세기 1-3장, 창조사건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창조사건이 주제를 잘 드러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창조사건은 구약 성경의 서론과 같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전달하려는 주제나 핵심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꼭 서론이 아니더라도 세상의 가장 처음, 창조 때의 모습이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며 뜻하셨던 원래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사건을 하나씩 살펴보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국을 창조하시다.

첫 번째로 창조사건에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천지창조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창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기억하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있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으로부터 창조가 이뤄집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셨더니 빛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물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이 나뉘라”고 명령하셨더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고 명령하셨더니 물이 한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고, 물이 드러나 땅이 되었습니다. “땅은 채소와 열매를 내라”라고 명령하셨더니 땅은 풀과 채소와 나무를 내었습니다. “광명체가 있어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고 하니 별이 생기고, 계절이 생겼습니다.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고 하시니 물에 물고기들이 생겨났고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하시니 새가 날았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언급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빛에게는 있으라고 했더니 없던 것에서 있게, 즉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물더러 움직이라고 하셨더니 물이 움직였고, 땅에게 열매를 내라고 하

니 열매가 생겼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 사건은 단순히 세상의 기원에 대한 설명일 뿐 아니라, 창조된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거느리시는 왕이십니다. 그 왕의 명령에 피조세계가 순종해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왕의 명령이 무작위적인 명령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창조된 순서를 보면 왕의 명령이 ‘질서’를 부여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라고 설명합니다. 아직은 형태가 잡혀있지 않은 모습의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차례대로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한번에 짬! 하고 완성된 세상을 만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빛을 먼저 만드시고, 바다와 하늘과 땅을 만들어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차례로 땅을 채우고, 하늘을 채우고, 바다를 채워 가십니다. 땅에는 식물을 먼저 만드시고 그 뒤에야 그 식물을 먹이로 삼는 짐승들을 창조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차례대로 창조하시면서 존재하는 방식에 질서를 부여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존재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도 명령하심으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는 세상으로 빛으신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맞게 창조하신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존재하게 된 세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닮아 선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세계였습니다.

2.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 인간.

하나님의 창조사건의 마지막을 장식한 것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이 인간의 창조는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릅니다.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단순히 ‘존재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인간의 창조에만 목적이 등장합니다.

(창 1: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인간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지 않고 인간을 통해 다스리게 하자고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특별하게 만들어집니다. 형상과 모양을 이해하면 인간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쉬워집니다. 먼저 ‘형상’이라는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동상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어떤 존재와 똑같은 이미지를 만들어 두면 그것이 ‘형상’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것의 형상이 있으면 그건 대상의 현존을 의미했습니다. 황제의 형상이 있다면? 그것은 황제와 동일시 여겨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양’이라는 단어를 풀어보면 ‘닮음을 따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 인간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합쳐보면 인간의 역할을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면 더더욱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해서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피조물 사이에서도 더욱 특별히 하나님을 대리하는 통치자로서의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3. 망가진 세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라

자,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라의 구성요소 3가지를 알고 있나요? 바로 땅, 국민, 통치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창조된 이 나라에서 3가지의 구성요소를 찾아봅시다. 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세계 전체입니다. 그리고 국민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존재,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과 인간이었습니다. 통치권은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것,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이 통치권을 받아서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명령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지요.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신 제동장치였습니다. 하나님 대신 세상의 통치자가 된 인간이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먹지 말아라’라고 금지해두신 것입니다. 이 나무의 이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서 열매를 먹지 않으면 ‘선’이고, 그것을 거역해서 먹으면 ‘악’인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열매를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 자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결국 자신 스스로 왕이 되고자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왕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선택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 때는 선하고 좋은 것들만 가득했는데 반역을 일으키고 나니 하

나눔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사랑하는 아내와도 서로 닳을 하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을 가득 내어주던 땅은 이제 종일 땀을 흘려야만 간신히 곡식을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생겼고 분노가 생겼습니다. 여자에게는 고통도 생겼습니다. 온갖 것이 다 망가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망가진 상태로 끝나게 되는 것일까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한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나라가 망가지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다짐하시면서 뱀에게 선포하십니다. 언젠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이룰 것을 의미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에게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승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성경은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창조사건에서 살펴본 바를 찬찬히 생각해보면 구약성경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키워드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완성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일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을 인간과 함께 이뤄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창조의 명령이 앞으로 구약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주어지고 발전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일은 결국 언젠가 오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성경 전체를 이끌어가는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창조사건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구약의 흐름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시는지, 그리고 인간과의 언약은 어떻게 맺어가시는지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잘 따라가 본다면 오늘의 창조사건처럼 우리가 배워온 많은 사건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더 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볼까요?